민주 방중단 "문화·관광 교류로 경색 해결 논의"

도종환 의원 등 7명 베이징 도착…"갈등 심할수록 외교 활동 더 필요"
한국행 단체관광 규제, 기업인 장기 비자·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 등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방문했다.

한중 외교갈등 심화 속에 15일 중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이럴 때일수록 외교활동을 더 해야 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과 "문화 교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방중 의원단의 부단장인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 규제, 기업인들의 장기 비자를 중국 측이 잘 내주지 않는 문제, 게임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푸는 것(중국 당국이 한국 게임 서비스를 허가해주는 것) 등 한중간 문화교류 문제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설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며 "문화교류를 하러 왔는데 (언론에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주한 중국대사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중 갈등이 심각한 시기에 이뤄진 민주당 의원들의 연쇄 방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외교활동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외교활동을 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방중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티베트 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한 방중 초청을 받은 것이라며 "일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그 나라에서 (피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등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항변했다.

방중 단장인 도종환 의원은 "지금 한국 드라마, 출판물, 게임 등이 (정상적인 대중국 수출이) 안 되고 있다"며 "서로 공연하러 오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이날 뤄수강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주임위원과 만날 예정이라며 "뤄 주임은 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을 때 중국 문화관광부 부장(장관)이었는데, 그때 서로 단체관광 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해서 일부 푼 적이 있다"며 "그런 분들을 만나서 문화교류와 관광교류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의원과 박정 의원 외에 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이날 중국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베이징에서 뤄수강 주임 등과 만나고, 농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16일 티베트로 이동,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참관하고, 현지 당국자들과 교류한 뒤 18일 귀국한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베이징으로 출국했고, 15일 저녁 귀국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안방 조공에 이어 원정 조공에 나선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방중인데 비용을 중국이 낸다고 한다"며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비용이 얼마인지와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방중단, 베이징 입국 더불어민주당 방중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정 의원과 신현영 의원 등이 15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尹정부, 6·15 선언서 평화 해법 찾아야"

6·15 공동선언 23주년…"DJ 담대한 지혜 되새기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연 역사적 날인만큼 정부 여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6·15 선언에서 평화의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6·15 선언에 대해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서 평화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면서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는 민주당 정부가 평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또 "6·15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이뤄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의 노력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정부의 평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은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평화 정책을 발전시켰듯이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6·15 정신을 살려서 남북과 한미와 북미가 이미 합의했고 중국도 동의한 4자 평화 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줬다"면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는 아픈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는 당부에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여의도 브리핑

"지방 대학병원 육성해 의료인력 이탈 막아야"

김원이 의원, 의대 신설 촉구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향후 5년 이내 수도권에 분원 총 11개를 건립할 예정이어서 지방 의료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병원을 설립·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15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건립을 추진중인 대학병원 분원은 서울대배곧병원(시흥)을 비롯해 총 11곳으로 병상수는 6600개에 이른다.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으로 환자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난 20년간 지속돼왔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20년 동안 전국에 개설된 대학병원은 총 16곳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 소속된 의사 수는 총 4298명으로 절반 정도인 1959명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500~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에는 적게는 200명에서 500명 내외의 의사가 근무한다. 수도권에 대학병원 1곳이 들어설 때마다 지방의사 수십명 이상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려면 의사인력이 지역 내에서 양성되고, 부속 대학병원에서 수련 후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손실 보상 대책 필요"

강은미 의원 촉구

정의당 강은미(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15일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회복 위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실이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분석·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감염병전담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이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실제 병상 가동률은 평균 48%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약 5년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년간 35개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의료손실은 1조5598억여원, 손실보상 지급액은 1조5737억여원으로 138억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상화까지 기관별로 1년~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손실액은 지난 3년에 버금가는 1조1243억여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메르스 대응 등에 기초한 실제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약 4.3년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것과 현재 병상가동률 추세에 근거해 정상화 기간과 손실액을 분석했다"면서 "정부가 설정한 6개월 내지 최대 1년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은 결국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